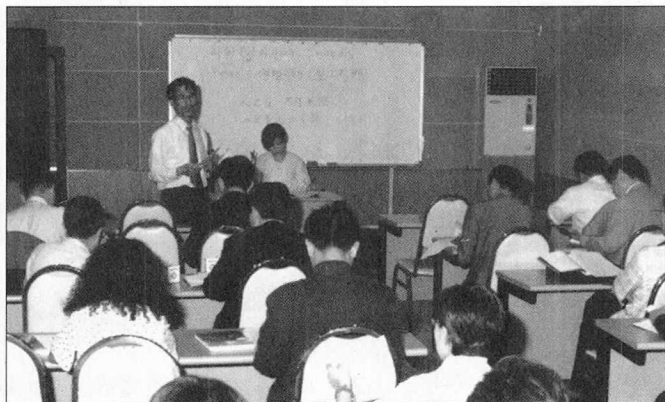


책읽기 통해 과학정신 충만

‘과학독서아카데미’를 찾아서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과학책읽기 모임을 갖는 과학독서아카데미.

지금 과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서만은 아니다. 창조·능력·합리의 과학정신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과학책 읽기 모임인 ‘과학독서아카데미(회장 이용수, 888-7651)는 독서를 통해 이같은 과학정신을 키우고 널리 알리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

“몇년 동안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책을 고르는 것이 읽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독서아카데미는 좋은 과학교양서를 선정해 폭넓게 읽는, 그저 순수하게 공부하는 모임이죠.”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과학기술상 진흥상금을 기꺼이 내놓으며 이 모임을 발의한 이용수 회장(58, 한림대 객원교수, 국제백신연구소 대외협력관)의 설명이다. 지난달 21일 첫모임에서부터 모임의 가능성을 충분히 짚을 수 있다. 우선 윤창현(테크노파크본부 대표), 홍옥희(서민재단 연구원), 홍영남(서울대 생물학과), 박택규(건국대 화학과), 김윤신(한양대 의대), 김종석(한국원자력문제연구소 조사연구부장) 등 26명의 탄탄한 인적 구성이 그렇다.

규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첫 모임에서 읽은 책은 《사회생물학 논쟁》(프란츠 부케티츠, 사이언스북스)이었는데, 번역자 김영철씨의 해설과 홍영남 교수의 평 뒤에 붙여진 토론이 얼마나 열띤었는지 순서 진행을 위해 억지로 중단시켜야 할 정도였다. “인간은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주제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그런 자리가 아쉬웠던 것이다.

“모임 소식이 전해지자 춘천·대구 등 여러 지방에서도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외형이 커지면 내실을 기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독서아카데미는 참가자 수를 늘리기보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지방 조직으로 꾸러갈 생각이다. 춘천지역은 지난 9일 이미 준비모임을 가졌고, 청주와 대구도 접촉 중이다. 또 직장 내에 만들어지는 독서 모임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후원할 생각이다.

“책은 전문적인 것보다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양물로 고릅니다. 다음번 책은 《생명시대》인데요, 책을 고르는 기준을 통해 지금 필요한 책, 또 대중은 어떤 책을 원하는지 과학출판의 전범도 제시해 갈 겁니다.”

책을 구매하는 것으로 출판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출판의 형식이나 내용에도 참신한 자극을 줄 수 있다. 모임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토론내용은 과학출판의 빈자리를 메꾸고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자료를 비디오와 문건으로 남겨 책이나 다른 형태로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아직은 모임의 틀을 만들어가는 일이 우선이지만 관련기관과 협력해 과학기술우수저작상이나 출판상 등을 제정해 출판사와 독자, 저작자가 모두 활기를 띌 수 있게 하겠다는 장기적 계획도 갖고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취지에 공감해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전력은 구사옥 문화교실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고 사이언스북스는 책을 기증해 줬다.

“사회에 만연한 일확천금의 꿈이나 뒷거래도 합리성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한 발명품이나 제도는 모두 능력정신에서 나왔습니다. 미래는 정보사회를 넘어 창조사회가 될 겁니다. 독서는 과학정신을 기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현주 기자

시민과 함께 한국문학 고전읽기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찾아서



경기도 안양에서 열린 ‘찾아가는 문화학교’에서 서영채 교수가 6월의 두번째 강연을 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광수의 《무정》이나 염상섭의 《삼대》를 들춰보기란 쉽지 않다. 딱히 책읽기를 싫어했다거나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다. 회사원으로, 주부로 살아가다 보면 책을 읽을 만한 기회가 좀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회장 이중환, 542-5131)가 현재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경기도 안양 노충문화정보센터에서 진행중인 ‘한국문학 100년 대표작 읽기’는 소설가·문학평론가 등과 시민들이 직접 만나 그간 읽기 힘들었던 한국문학의 고전을 다시 읽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문화학교)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6월에는 안양, 9월에는 안동에서 각각 7주의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김윤식(서울대 국문과)·최원식 교수(인하대 국문과), 김병익 대표(문학고지성사), 이중환 회장 등이 한국문학 대표작 10선을 뽑았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임거정》(홍명희)·《무정》(이광수)·《삼대》(염상섭)·《회청거리는 오후》(박완서)·《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토지》(박경리)·《김소월 시집》·《정지용 시집》·《김수영 시집》·《천변풍경》(박태원) 등이다. 이 10선을 중심으로 박완서·김승희·양문길씨 등 작가와 김병익·이중환·권택영·우찬제·서영채 등 평론가가 강의에 나서 각 작품의 문학사적 의미와 자세히 읽는 방법을 설명한다.

지난 1일 진행된 첫번째 강의에서 이중환 회장은 책읽기의 중요성과 지금 한국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대표작을 선정하게 된 배

경 등 총론을 설명하고 홍명희의 《임거정》을 중심으로 작품이 씌어진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 8일 열린 두번째 강의에서 서영채 교수(한신대)는 《무정》과 《삼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대문학 형성기의 움직임과 각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미를, 15일에는 박완서씨와 권택영 교수가 함께 나와 작가와 평론가의 시각에서 《회청거리는 오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수강료는 없다. 현재 수강인원은 모두 40여 명인데, 안양과 인근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수강생들의 열의가 뜨겁다. 한 수강생은 “한국문학을 다시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물론 의미없이 지나치던 문학작품의 배경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4주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신청만 하면 언제라도 수강할 수 있다.

협의회측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책을 통한 오늘의 삶읽기’라는 주제로 3개월 단위의 강좌를 실시해온 바 있다. 《게으름의 찬양》·《털없는 원숭이》·《슈테판의 시간여행》·《의자》 등의 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한국문학 100년 대표작 읽기’ 프로그램은 이 강좌의 연장선상에 출발점을 둔 셈이다. 시간상 안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매주 목요일 서울 협의회 사무실에서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토론하는 강좌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한편 강의내용과 함께 감상까지 기록한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는 안동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다.

—김연수 기자